



제 2018-146호

중국

베이징시 판권국, 15개 쇼트클립 플랫폼에 저작권 관리감독 강화 등 업무지시

북경사무소

■ 현황

- 최근 국가판권국의 '검망 2018' 특별행동의 요구에 따라 쇼트클립 플랫폼상의 저작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베이징시 판권국은 콰이서우(快手), 진르터우타오(今日头条), 바이두(百度), 아이치이(爱奇艺), 이디엔즈쑤(一点资讯), 봉황망(凤凰网) 등 15개 쇼트클립 플랫폼 기업들을 소집하여 관리 감독 업무회의를 개최함

■ 주요 내용

- 베이징시 판권국은 먼저 회의에 참석한 15개 쇼트클립 플랫폼을 상대로 베이징시 '검망 2018'년 특별행동의 업무 요구를 상세히 소개함과 동시에, 2018년 쇼트클립 플랫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통보했으며, 쇼트클립 플랫폼의 일상적인 관리 감독 업무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제기함



- 첫째, 저작권 관리 감독에 대한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관련 고발 고소 및 신속한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기업 내부의 저작권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함
 - 둘째, 양호한 저작권 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검방 행동 업무 요구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중송신 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플랫폼 내부의 저작권 질서와 환경을 정화해야 함
 - 셋째, 건전하고 질서 잡힌 산업 발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업계 자율 규범 및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쇼트클립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함
- 베이징시 판권국은 또한 쇼트클립 플랫폼 기업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저작권 관리 감독 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하의 업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첫째, 콘텐츠 자체의 건전함이 근본이고, 사회주의 주선율과 긍정적인 에너지(正能量)를 적극 홍보하며, 선전 여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견지해야 함
 - 둘째, 저작권법 준수가 핵심이며, 신의와 신용 및 준법(守法)을 기업의 핵심 가치관으로 수립해야 하며, 선 이용허락 후 사용이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함
 - 셋째,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법률 법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함
- 이러한 베이징시 판권국의 요구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한 쇼트클립 플랫폼 기업의 대표자들은 향후 국가판권국의 지도 아래 쇼트클립상의 저작권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바로잡는 등 저작권 환경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밝힘



■ 평가

-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또한 중국인의 큰 사랑을 받은 콘텐츠가 쇼트클립임. 최근 저작권 침해는 물론 중국 정부의 주선율과 반대되는 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규제를 크게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상당수 중소 플랫폼들이 퇴출당하는 등 시련도 겪고 있지만, 쇼트클립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 기업 또한 중국의 쇼트클립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진출 모색이 필요해 보임

■ 출처

- 국가판권국망(国家版权局网)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84632.html>